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 시점 2026. 11. 9.(월) 14:00 (2026. 11. 10.(화) 조간) 배포 2026. 11. 9.(월) 09:00

# 국산 NPU, 엔비디아 시스템과 연계해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 진출 길 연다

- 과기정통부-엔비디아 NVLink Fusion 협력 일환으로 엔비디아·SK텔레콤·리벨리온 MoU 체결, 국산 NPU-엔비디아 GPU 연계 추진 -

- 과기정통부, 엔비디아와 'AI 스타트업 파트너십 포럼' 공동 개최 국내 AI 스타트업 22개社가 참여해 엔비디아와 협력 방안 논의 -

**【관련 국정과제】22. 초격차 인공지능 선도기술·인재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9일(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엔비디아 'AI DAY' 행사에 참석해 엔비디아·SK텔레콤·리벨리온 3자 간 'NVLink Fusion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을 축하하고, 엔비디아와 'AI 스타트업 파트너십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기정통부와 엔비디아가 그간 협의해 온 NVLink Fusion 기반 국산 NPU 연계 협력의 일환으로 체결됐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AI 데이터센터(AIDC)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NVLink Fusion을 기반으로 리벨리온의 NPU와 엔비디아 GPU를 연계한 이기종 AI 컴퓨팅 시스템 구현이 추진될 예정이다. 체결식에는 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 레이몬드 테(Raymond Teh) 엔비디아 수석부사장과 정석근 SK텔레콤 CTO,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등이 참석했다.

NVLink Fusion은 엔비디아의 AI 컴퓨팅 시스템에 외부 파트너의 가속기를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이를 활용하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엔비디아의 랙 스케일(Rack-scale) 시스템에 탑재해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와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이번 협력은 국산 NPU가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넘어 세계 AI 컴퓨팅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의 시스템 아키텍처에 결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내 AI 반도체 기업은 세계적인 AI 컴퓨팅 플랫폼을 통해 제품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검증과 사업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AI 추론 수요가 늘면서 GPU와 NPU를 함께 활용하는 이기종 컴퓨팅이 차세대 AI 인프라의 중요한 방향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국산 NPU와 엔비디아 시스템 간 연계는 국내 기업이 AI 데이터센터 시장에 진입하고 성능과 비용·전력 효율을 중시하는 AI 추론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추진한 AMD와의 협력에 이어 엔비디아와도 국산 NPU 연계 협력이 구체화되면서, 국내 AI 반도체 기업이 다양한 글로벌 생태계와 연계할 수 있는 기반도 확대된다. 이는 특정 기업이나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 NPU의 기술적 특성과 경쟁력을 다양한 AI 인프라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협력이 리벨리온에 그치지 않고 다른 국산 NPU 기업들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으로 열린 기회가 국내 AI 반도체 산업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성능 고도화에 머무르지 않고 실증·사업화·수출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국산 AI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열린 'AI 스타트업 파트너십 포럼(MSIT-NVIDIA Korean AI Startup Partnership Forum)'은 국내 AI 스타트업과 글로벌 AI 컴퓨팅 생태계를 선도하는 엔비디아 간 협력 기회를 넓히고,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I 반도체뿐 아니라 AI 모델, 피지컬AI, 영상이해, AI 설계·안전, AI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참여해 기술과 사업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 참석기업(총 22) : AI 모델(업스테이지, 모티프), 피지컬AI(리얼월드, 엑스와이지, 홀리데이로보틱스, 컨피그인텔리전스), AI 영상이해(트웰브랩스, 스카이인텔리전스, 파일러), AI 설계(엔닷라이트, 알세미), AI안전(에임인텔리전스), AI 인프라(프렌들리AI, 래블업, 디노티시아, KTNF, 포인투테크놀리지), NPU(퓨리오사, 답엑스, 모빌린트, 하이퍼엑셀, 리벨리온)

포럼에는 엔비디아 측에서 디퓨 탈라(Deepu Talla) 부사장을 비롯해 조나단 코엔(Jonathan Cohen) 부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내에서는 업스테이지, 리얼월드, 트웰브랩스, 퓨리오사AI, 리벨리온 등 주요 AI 스타트업 22개사

가 참여했다.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 산업의 경쟁력은 개별 기술의 발전을 넘어, 다양한 역량이 서로 연결되고 융합될 때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엔비디아와 기술적·사업적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국내 AI 스타트업과 엔비디아 간 협력이 일회성 교류에 그치지 않고 공동 연구와 기술 검증, 사업화 등 실질적인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AMD에 이어 엔비디아와도 직접적인 협력의 기회를 마련한 것처럼,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더 많은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담당 부서 | 정보통신정책실<br>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이강용 (044-202-6230) |
|---|---|---|---|---|
| | | 담당자 | 사무관 | 손희수 (044-202-6232) |

대체불가 대한민국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삶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OPEN 인공지능 학습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